

잘못 쓴 말, 고쳐 써야 할 글

국어연구소 펴낸 「국어오용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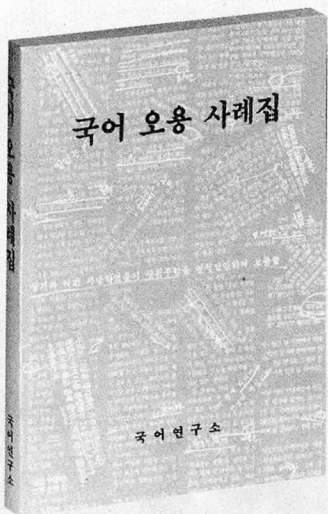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간행된 주요 일간신문, 주간잡지, 월간잡지 등의 기사와 거리의 간판이나 게시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우리말과 글의 오용사례를 모은 「국어오용사례집」이 출판돼 올바른 국어생활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소장 이기문)가 최근 펴낸 이 「국어오용사례집」은 ①어휘사용(어형, 어의, 어휘 선택 등) ②표기법(한글맞춤법, 한자표기, 외래어표기법 등) ③통사구조(격 표시, 태 표시, 시간 표시, 대우법, 어순 등)에서의 국어오용사례와 그 바른 형식을 제시하는 한편, 「비고」를 통해 해당 사례들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 활자매체 종사자들에게 특히 귀중한 참고자료 구실을 한다.

다음에 이 책에서 제시된 국어오용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인용문의 돌출부분이 오용사례, 괄호 안이 바른 형식이다.

어휘사용 및 표기법에서의 오용사례

웃어른을 모시고 사니까(웃어른)
그는 **바지가랑이**에 소변을 다 **저렸다**는(바지가랑이, 저렸다)
저녁이 되고 땅거미가 밀려올 때면 **으레히** 아버지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셨고(으레)
한국육상 체제늘서 **허위적**(허우적)
모두가 한복바지 같은 판탈롱에 무릎을 덮는 와이셔츠형 **웃도리**(윗도리)
미스 장이 **듣게시리** 얼썩구절썩구 잘도 떠들어대는 것이었다.(듣게끔)
주의력을 집중하여 **열심으로** 익혀 왔기 때문에(열심히)
진짜 나이는 **비밀이에요**.(비밀이예요)
빼앗긴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했다고 말했다.(가열하게)
올챙이목을 먹어 보았다는 이는 **그닥** 많은 것 같지 않다.(그다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제서야** 경찰서 내 보호실에서 황급히(그제야)
영세민에겐 주거안정만이 소득안정의 길이 거기서 이 체제를 지켜야 할 구실이 **깃들**는(깃들일)
모든 **꾸미**(고명; '꾸미'는 국, 고기의 작은 조각)
등 무소속 후보들



(끼여든)

자명종 소리에 눈 **부비며**(비비며)
주가란 **늘상** 사이클을 형성하며(늘)
서로 경쟁이나 하듯 목청 **돋귀** 이야기를 할 때(돋위;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란 뜻)
이음새가 없고 표면이 마치 거울처럼 맑고 깨끗해서(이음매)
바람이 살을 **에일** 듯 차가웠으나(엘)
보이지 않는 비리는 **좀처럼**해서 청산하기가 어렵다.(좀처럼)
어머니가 **층계**까지 따라나서고 있었다.(층계참; 層階站)
모처럼 귀가 번쩍 **뜨이는** 뉴스(뜨이는)
남편이 **홀깃** 의미심장한 눈빛을 쏘아 보냈고(홀끗 / 힐끗)
건설공사비가 **현재방식**보다 7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방식의)
영산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기는 39년 광주 측후소가 생긴 이래 60년 만에 처음(영산강 물이 위험수위를 넘기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매무새**를 만지는 건 흥이 되지 않는다.(매무시)
보는 이들을 **안스럽게** 했다.(안쓰럽게)
우리네 토목기술로는 **그간** 일은 누워서 떡먹기라오.(그깃)
대기업에 불하해버린 것을 보면 **알쪼다**.(알조)
13일 현재 관리비가 **거의 대부분** 수납된 것으로 밝혀졌다.(대부분; '대부분'에 '거의'의 뜻이 내포돼 있다)
통사구조상의 오용사례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수마**에 할켄 장성읍은 밤이 되면서(수마가)

1989년 하반기 중에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것이)
광주문화원의 존치에 관한 **문제가** 연구중에 있다.(문제를)
'매춘'이란 **영화**에 보면(영화를)
특히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대학생 자녀를)
다시 말해 **원하는 것만큼** 모두 손에 질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원하는 만큼 / 원하는 것을)
병상의 은사께서는 '자네 왔나' 한마디 하시 고는 **고통**에 못이겨 계속 **신음**하셨다.(고통을, 신음하셨다)
귀가하던 김정순씨가 20대 청년 **2명**으로부터 예리한 흉기로 **등**이 찔려(2명에게, 등을)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는 노·사·정부 모두의 **오판과 실기**(失機)에서 **빛어낸** 실책적인 것이다.(실기로, 빛어진)
대논의 이운임, 이명희, 박미희 트리오는 **의외**의 부진한 경기를 펼쳐(의외로)
그들의 **고통**과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다.(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과 話者이며, '고통'은 참가하는 대상)
하디간 날이 밝은 후에 **신문사**로 알리자는 거요.(신문사에: '로'는 동작의 방향을, '에'는 동작이 미치는 상대를 나타낸다)
역사상 수많은 병이 **인류**에 대해 도전해 왔었다.(인류에게 / 인류한테)
이 드라마의 열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교민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사이에도)
독일방직과 함께 근무하실 성실하고 의욕적인 분을 모십니다.(독일방직에서)
아내가 힘들어 하면 **앞서** 손을 잡아주고, 다리가 아프다면 뒤에서 밀어주며(앞에서; '뒤에서'에 대응되는 형식은 '앞에서'이다)
가수 조영남씨는 이미숙씨의 **남편**에게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남편과)
5백여 그루가 **뿌리채 뽑히지거나**(뿌리채 뽑히거나)
최호중 외무장관은 "북방외교는 그동안 상대가 사회주의국가인 점 등을 고려, 초기에 비밀로 **추진**해온 게 사실이나, 헝가리와 의 국교수립 등이 어느 정도 성공함에 따라 정상적인 외교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추진한 게, 바꾸어가고)
이 시점에서 학원문제를 생각하면 백가지 약이 무효 같은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든다 /

느낀다)
얼마전 **몹돈**을 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식에 좀 투자를 했고(몹돈, 기회가 있어 / 계기가 있어)
이같은 걸개그림의 등장에 대해 미술평론가 박建은 "**회화가 그전처럼 가진 자의 응접실에 놓여져 감상하던 시대는 지났다**"고(전처럼 그림을 가진 자의 응접실에 놓고 감상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편 골프장사업이 **엄청난** 수지를 맞는 업종으로 둔갑하자(엄청나게, 맞추는)
프로 통산 2할8푼5리의 대기록을 남기고 국내에선 **첫번째 은퇴**선수가 된 윤선수는(첫 번째로 은퇴하는)
그러나 **일을 그런 식으로 몰려와 향의**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타일러서 돌려보냈다.(그런 식으로 몰려와 향의한다고 일이 풀어지는 것도)
전직 국회의원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국회의원 등을 지낸 / 전 국회의의원)
직장여성의 몸치장은 유행에 민감하기 보다는 특이하지 않으면서도 수수한 가운데 자기 **멋을 가꿀 줄 아는 여성**이 더 건실해 보인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새기고, 내적미를 **가꾸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멋을 가꾸는 것이, 가꾸는 게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신혼여행은 일본, 하와이, 미국 등지를 9박 10일 정도 **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돌 계획이라고 / 돌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무려 1백39일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끊겼는데도 가족들은 왜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지 않았을까?(실종신고를 하지 / 실종 신고서를 내지)
15년 전쯤에 필자가 두메산골에서(15년쯤 전에)
금년에 대한항공이 최신기종인 **보잉 747-400** **점보기 3대** 등을 도입하면 보유기는 73대가 된다.(보잉 747-400 점보기 등 3대를)
그의 합리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에피소드(잘 드러내는 / 잘 보여주는)
드라마에 진보적 인물을 **등장**시키면 진보적 영화가 되는 건 아니다.(등장시킨다고)
입후보자는 최만립 KOC부위원장과 신동욱 궁도협회장 등 **2명** **이외**는 자천타천으로 소문만 무성(등 2명 이외는)
우리 일상생활에 **외래어**가 범람, **우리 말**에 **침해**를 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우리말을 침해한 것은)